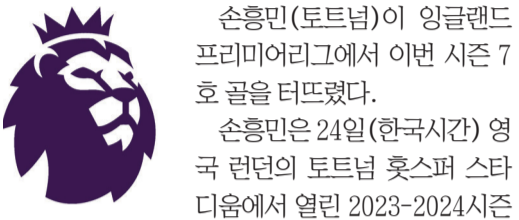


손흥민 1골·1도움 ‘원맨쇼’... 토트넘 1위 질주

시즌 7호 골 리그 득점 2위
“케인 이적에 스트라이커 맡아
팀 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7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풀럼과 홈 경기에서 전반 36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6분에 히샤를리송의 패스를 받아 침착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열었다. 이어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0 승리에 공헌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1일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은 이후 리그 7호 득점에 성공,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의 9골을 2골 차로 추격하며 득점 부문 2위에 올랐다. 손흥민 외에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도 7골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토트넘)은 리그 7호 골을 터뜨린 뒤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다”며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종료 후 맨 오브 더 매치로도 뽑힌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기분이 나쁘지 않지만,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겸허하게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다음 경기까지 시간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리그 득점 2위에 오른 손흥민은 28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리그 1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7승 2무, 승점 23으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선두에 올랐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을 묻는 말에 “선수 모두 팀을 위해 뛰는 자세가 달라졌다”며 “새 감독님과 함께 프리시즌부터 열심히 준비한 결과 작년보다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18승 6무 14패, 승점 60으로 8위에 머물렀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안지 포스 데코글루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았다.

손흥민은 “팀의 좋은 역할을 하던 선수가 이적해 서인지 다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로 뭉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며 “선수들 모두 가족처럼 서로 빈 자리를 메워주고, 어떻게 경기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토트넘 홉스퍼 손흥민이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풀럼과 홈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은 지난 시즌까지 주축점으로 활약한 해리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 전력 약화가 우려됐으나 뜻밖에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영국 BBC는 “시즌 개막 후 9경기에서 승점 23 이상을 기록한 사례가 8번 있었는데 그중 네 번이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손흥민은 “팀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케인의 이적으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손흥민은 “축구는 모든 포지션이 어렵

다”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익숙한 자리고 독일에 진출하면서도 맡았던 포지션인데, 제임스 매디슨 등 동료 선수들이 도와줘서 한결 쉽게 그 자리를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팀에서 수비를 원하면 수비도 해야 한다”며 “팀이 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레버쿠젠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풀럼 골키퍼 베른트 레노를 상대로 득점한 것에 대해 “친한 사이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손흥민은 “그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슛을 잘 막을 수 있는 선수”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수영 김우민·황선우 2000만원 넘는 포상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역영을 펼치며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연 김우민(22)과 황선우(20·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청)가 2000만원 넘는 포상금을 받았다.

대한수영연맹은 24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아시안게임 포상금 수여식을 열었다.

지난 8일 폐회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 경연은 무려 22개(금 6, 은 6, 동 1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이전에 한국 수영 경연이 아시안게임 최고 성과를 올린 대회로 기억했던 2010년 광저우 대회(금 4, 은 3, 동 6개)보다 금메달은 2개 더 많았다.

또한, 14개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다이빙에서도 단일 아시안게임 최다인 메달 6개(은 2개, 동 4개)를 따내며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은 2개·동 3개), 2014년 인천(은 1개, 동 4개) 대회를 넘어 단일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대한수영연맹 포상안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개인 1천만원, 단체 2천만원(출전 선수를 분배)을 받는다. 은메달은 개인 200만원, 단체 400만원, 동메달은 개인 100만원, 단체 200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선수단 입상 포상금 전달식에서 정창훈(가운데)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왼쪽부터), 황선우, 지유찬, 백인철에게 경영 개인전 금메달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원의 포상 규정도 있다.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 개인과 단체 1천만원,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수여식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선수는 김우민이다. 김우민은 개인 종목 남자 자유형 400m와 800m, 단체전인 남자 계영 800m에서 총 3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자유형 800m 개인 종목에서는 한국 신기록, 계영 8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대한수영연맹이 김우민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2천883만3천400원이다. /연합뉴스

광주 펜싱 최건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동메달

남자 사브르 단체전 출전

2022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광주 펜싱 최건우가 동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최건우가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밝혔다.

최건우가 속한 한국 남자 사브르팀은 이번 대회

단체전 4강에서 태국에 33대 45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 인도를 45대 29로 이겨 최종 3위를 기록했다.

최건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1급 판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부터 휠체어펜싱을 시작한 최건우는 광주 펜싱 남자팀의 막내로 들어와 지난해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에페 개인전 3위, 남자 사브르 단

체전에서 2위를 하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돼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한편 이번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광주는 보치아 강선희, 탁구 김영건·김정길·박진철·서수연·김성욱이 출전해 예선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론볼 정재홍, 보치아 강선희, 사격 박승우, 양궁 정진영, 펜싱 최건우, 탁구 김영건·김정길·박진철·김성욱·서수연이 메달 수확에 나선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텍사스,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

미국 ML 아메리칸리그 우승
휴스턴과 7차전 11-4 승리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텍사스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최종 7차전에서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휴스턴 에스트로스를 11-4로 꺾었다.

‘갈장 승부’에서 승리한 텍사스는 2010, 2011년에 이어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월드시리즈 무대에 올랐다.

1960년에 창단해 아직 한번도 월드시리즈 챔피언에 오르지 못한 텍사스는 대권 삼수에 나선다.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베팅 끝에 몰렸던 텍사스는 적지인 미닛메이드파크에서 벌어진 6~7차전을 방망이로 내리 잡아 아메리칸리그 역전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이번 ALCS에서 텍사스는 휴스턴의 안방인 미닛메이드파크에서 4승을, 휴스턴은 텍사스의 홈인 알링턴에서 3승을 각각 따내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세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백전노장의 승부사 브루스 보치 텍사스 감독은 지도자 은퇴 4년 만에 현역에 돌아오자마자 레인저스를 월드시리즈로 이끌어 지도력을 인정 받았다.

ALCS 7차전에서 텍사스는 1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 코리 시거의 우중월 솔로포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후 기동력으로 추가점을 뽑았다. 에번 카터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2루를 훔쳤고, 아돌리스 가르시아가 왼쪽 펜스를 직격하는 적시타로 카터를 홈에 불러들였다. 가르시아도 2루 도루에 성공한 뒤, 미치 가버의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때 득점했다.

1회초에 3점을 내준 휴스턴은 1회말 호세 아브레우의 좌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3회에는 텍사스가 가르시아의 솔로포로 추가점을 뽑자, 3회말에는 휴스턴이 알렉스 브레그먼의 솔로포로 응수했다.

텍사스는 4회에 4점을 뽑으며 승기를 굳혔다.

1사 만루에서 카터가 2타점 우익수 쪽 2루타를 날렸고, 가르시아가 좌전 적시타로 2타점을 보태 텍사스는 8-2로 달아났다

6회초에는 나세니얼 로가 우월 투런 축포를 쏘아 올렸다.

가르시아는 8회 좌중월 솔로 아치를 그리는 등 5타수 4안타 5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텍사스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월드시리즈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3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을 노렸던 휴스턴은 타격 싸움에서 텍사스에 밀려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텍사스와 월드시리즈 우승을 다투 팀은 25일에 확정된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KBO리그 출신 선발 투수 메릴 켈리의 역투에 힘입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를 최종전인 7차전으로 끌고 갔다.

애리조나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벅크 파크에서 벌인 NLCS 6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1로 눌렀다.

3승 3패 동률을 만든 애리조나는 25일 오전 9시 7분 같은 장소에서 7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7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